

새 책

▶결에 있다는 것(김종미 지음)=10대 여성 청소년 지우, 강이, 여울이를 중심으로 할머니, 어머니, 딸로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지는 생의 면면을 그려낸다. 70년대 여성 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부터 현재 한국 사회가 빈민을 대하는 민낯을 드러내는 도시 재생 사업,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세월호와 촛불 집회까지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작가 특유의 목소리로 옮겨 감동을 안긴다. 창비, 1만4000원.



▶기억나지 않아도 유효한(헤이수 지음)=등단한 지 20년 넘은 처음 펴낸 작가의 에세이집이다. “문학을 통해 소중한 것을 배우고 뛰어난 분을 만났으며,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저자는 에세이에서 그동안 문학의 길에서 배우고 만나고 알게 된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뮤진트리, 1만4000원.



▶근현대 프랑스 철학의 뿌리들(황수영 지음)=칸트 이후 정형화된 서양 근대 철학사 이해를 프랑스 철학사를 통해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발견하려 한다. 책은 철학 입문자부터 들뢰즈와 시몽동 같은 현대 프랑스철학 사상가들에 관심있는 독자들, 철학 전문 연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들이 프랑스철학을 탐험하는 데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되어 준다. 갈무리, 2만3000원.



▶2021 제12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전하영·김멜라·김지연·김혜진·박서현·서이제·한정현 지음)=올해 12회를 맞은 젊은작가상 수상작 7편이 묶였다. 전하영 작가의 ‘그녀는 조명을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새로운 예술사가 쓰이기 시작한 분기점에서, 이 소설은 젊은작가상 대상의 자리에 충분히 값있다”라는 강지희 문학평론가의 호평을 받으며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문학동네, 5500원.



▶제왕의 스승 장량(위리 지음, 김은문 옮김)=장량은 한나라 건국의 일등공신으로, 책략의 대가였다. 모사로서 큰 성취를 이루고도 뒤로 물러난 장량의 일생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탄하고 숭배한 ‘현신’의 대명사기도 하다. 책은 위대한 책사 장량의 일대기다. 제왕의 스승으로 성장해가는 장량의 변화 과정, 인간으로서 행한 분투와 노력, 고통과 집착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더봄, 2만원.



▶열린책들에서 만든 책들 2021(열린책들 편집팀 엮음)=독자를 위한 가이드북으로 단순한 책 소개 모음이 아닌 비평과 인터뷰집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움베르토 에코, 로베르토 불라노, 존 르카레, 루이스 세풀레다, 토니 주트,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 나옴이 클라인 등 30여 명의 작가들의 인터뷰와 서평이 수록됐다. 열린책들, 비매품.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그림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써야 했다

조애나 러스의 ‘여자들이 글 못 쓰게...’

어떻게 여성의 글 억압했나 11가지 항목서 방어적 분석

19세기 이전 글을 썼던 우리나라의 여성 작가들을 떠올려보자. 기껏해야 신사임당, 허난설헌 정도다. 그 시기에 글을 쓴 여성이 정말 그들 밖에 없었을까. 실혹 현대에 이르러 여성들의 문단 진출이 늘었다고 해도 그들에게 흔히 사랑 타령이다. 사회적 관점이 부재하다. 감정적이다. 내면세계에 치우쳐 있다와 같은 평가가 따라붙는다. 이 모든 시도에도 기여이 살아남는다면 그들은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가 된다.

미국 태생의 페미니스트 SF 작가로 2011년 세상을 떠난 조애나 러스의 ‘여자들이 글 못 쓰게 만드는 방법’은 여성들의 글쓰기가 어떤 방식으로 억압되어 왔는지를 보여 준다. 1970년대에 시작한 작업의 결과물로 1983년 초판이 나왔고 2018년 제사 크리스핀의 서문을 덧붙여 새롭게 출판됐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련된 문학 비평의 언어들이 어떻게 여성의 글을 지우고 고립시켜 왔는지를 유머러스한 신랄함으로 파헤치고 있다. 그 여정을 좇다 보면 역사에서 지워졌던 여자들의 이름이 무수히 되살아난다. 버지니아 울프, 조지 엘리트, 브룬데 자매 등 한국 독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름도 있지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낯선 작가도 적지 않다.

영문학계에서 여성 작품을 무시하고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데 사용된 방법은 어떤 것일까. 러스는 11가지 항목을 통해 방어적으로 갖가지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데 금지하기, 자기기만, 행위 주체성 부정하기, 행위 주체성 오염시키기, 이중 기준으로 평가하기, 잘못된 범주화, 고립시키기, 예외로 취급하기, 본보기 없애기, 회피하게 만들기, 미학 방식적으로 억압되어 왔는지를 보여 준다. 1970년대에 시작한 작업의 결과물로 1983년 초판이 나왔고 2018년 제사 크리스핀의 서문을 덧붙여 새롭게 출판됐다.



오랜 기간 가정이라는 영역에서 한정된 삶을 살아야 했던 여성들에게 그 한계를 넘어 자신의 실존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글쓰기였을 것이다. 여자들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썼다. 대부분 남성 비평가들이 한 말과 태도를 그대로 가져와 그들 스스로 이중 잣대, 위선, 자기기만을 드러내도록 만든 러스는 말미에 “세상에는 어느 누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여자들이 쓴 좋은 문학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신념이 자리잡았다”고 희망을 전했다. 박은실 옮김. 낯은산, 1만7000원. 진선희기자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일곱 해 기록한 엄마

김은정의 ‘엄마는 김예쁨이꽃입니다’

그는 잠자기 전 아이에게 ‘섬집아가’를 들려줬다. “엄마가 섬집늘에 굴 따라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로 시작되는 노래를 그는 그저 동요로만 여겼다. 이 대목을 들던 아이가 말했다. “엄마, 아기가 왜 혼자 있어요? 혼자 있으면 슬프잖아. 엄마가 회사 가면 아기는 어린이집을 가야지. 그래야 친구들과랑 재미있게 놀지.” 아이는 노래 속 혼자 있을 ‘아기’에게 감정입이 된 듯 했다. 그는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단어는 아이에게 설명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도 알아야 하는 것이기에 차분히 설명했다. 슬픔이 있어 기쁨도 있는 것일 거라고.

고 글을 쓰는 엄마”라는 김은정씨가 펴낸 ‘엄마는 김예쁨이꽃입니다’로 아이의 말이 고스란히 엄마의 글로 엮였다. 표제에 등장하는 김예쁨이꽃은 저자가 마흔에 얻은 셋째 아이가 지어준 이름이다. “엄마는 나보면서 예쁘게 웃고 꽃을 좋아하니까... 김예쁨이꽃 어때요?”라고 했고 도서관이나 마트에 갈 때 불리는 그의 이름이 되었다.

이 책에는 그 아이와 함께해 온 일곱 해의 풍경이 50가지 일화에 펼쳐진다. 아이와 나눴던 이야기를 적고 그 옆에 엄마의 생각을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으로 써 내려갔다.

저자는 “아이가 자라는 만큼 엄마도 자란다”고 했다. 그런 사연이 몇 가지 소개되어 있다. 그 하나가 ‘용기’다. 아이는 ‘용기’를 두고 ‘엄마



의 사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풀이했다. 이 말에 엄마도 아이에게서 용기를 얻는다고 적었다. 블록쌓기를 같이 했던 어느 날엔 “너무 힘들다. 포기하자”란 엄마의 말에 아이가 “안 돼요, 포기하면 엄마도 기쁨 거예요”라고 답했다. 이날 엄마의 기록엔 이런 문장이 보인다. “아이는 잘 자라고 있네요. 저도 아이 키우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부크크, 1만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홍성익의 ‘그림의 길, 음식의 길’ “통일 되고 차별 없을 때 즐거운 그림”



홍성익의 '기원' (대화)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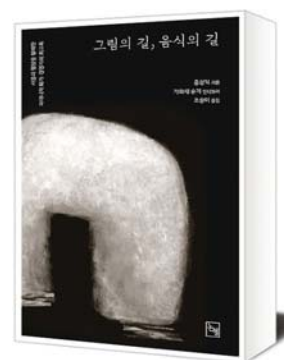
그는 1989년 제주 땅을 밟았던 기억을 맨 먼저 꺼냈다. 어머니의 고향이고 아버지가 머물렀던 제주를 여전히 4·3을 말하지 못하는 섬이었다. 일본 와카야마현에서 태어난 그의 아버지는 해방 후 제주도로 갔지만 4·3의 와중에 간신히 목숨을 건져 오사카로 돌아왔다. 참혹한 학살 현장을 목격한 어머니 역시 구사일생 피난선을 타고 이카노(현 이쿠노)로 건너갔다.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 일어난 크나큰 비극인 4·3은 그의 성장기에 영향을 끼친 결정적 인자였다. 미술교사, 화가, 기업가로 살아온 재일조선인 3세 홍성익 작가다.

개인적 체험을 넘어 재일조선인사와 한일현대사를 다룬 그의 ‘그림의 길, 음식의 길’ 한국어판이 나왔다. 어느 날

오사카 이쿠노 출신의 화가 4·3 겪은 부모 가업도 이어 재일조선인사 담은 회고록

암 선고를 받고 항암치료와 수술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그는 언제든 인생이 끝날 수 있으니 마지막



정리를 잘 하지는 않지만 30년지기 벗인 저널리스트 가와세 손지가 인터뷰어로 나선 이 회고록을 출간했다.

“그림의 길, 음식의 길”은 지난 삶을 압축한 말이다. 노점상을 거쳐 떡 제조사인 덕산(도쿠야마)물산을 창립한 부모의 가업을 이은 그는 평양과 서울 등을 누비며 혁신적 기업가의 면모를 보였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떡, 냉면 등을 제조·판매했고 북한의 먹거리를 한국과 일본에 전하려는 활동에 나섰다.

기업의 대표 이전에 그는 일본 조선대학 미술과를 졸업하고 오사카시립미술연구소를 수료한 작가였다. 1987년 태평양미술회상, 1988년 문부대신상, 1990년 신진 미술인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야스이상을 수상하며 주목 받았다.

그는 2017년 경영에서 물러났고 20년 만에 다시 붓을 잡는다. ‘이쿠노 코리야타운 출신 화가’라는 정체성을 지닌 그의 ‘기원’ 연작 등에 재일조선인들의 애환과 통일에 대한 열망이 스며 있다. 구상에서 비구상으로 화풍이 바뀌었으나 남북이 통일되고 조선인에 대한 민족차별이 없어졌을 때 ‘즐거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란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조승미 옮김. 눈형, 1만9800원. 진선희기자

태양광설비 정부 보조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9호]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00호] 신재생에너지 보급(건물지원)사업 공고

🏠 단독 주택

자부담금 230만원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 공사비 50% 보조금 지원
- 공동주택 (아파트/다세대) 별도상담
- 타운하우스 등 단체신청시 특별할인

🏢 상가 건물

자부담금 : 공사비의 45~50%

- 사무실/식당/펜션/공장/학원/축산시설 등
- 설치용량 200kW까지 지원가능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 50~55% 보조금 지원

신청 기한 : 단독주택 4월 18일까지 / 상가건물 5월 11일까지
상담 접수 : 제주솔라에너지(주) 742-5775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2021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